

‘빛고을생활권 협의회’ 지역 상생 앞장

광주시·인접 11개 지자체 참여 무등산권 지질관광 본격 추진 취약지 협진시스템 전국 확대 매달 명사와 떠나는 남도 여행

생활권을 함께 하는 광주시와 인접 시·군의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가 지역의 상생과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 인접 5개 시·군(나주시·화순군·장성군·함평군·담양군) 등 1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는 지자체의 규모를 떠나 동등하게 만나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상생’을 위해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과 협력의 결과,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역행복생활권 운영 체계 평가’에서 2015·2016년 연속 우수생활권으로 선정됐으며, 전국 63개 생활권

중에서 선도사업 6건의 최다 선정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2년 연속 우수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 계기가 됐고,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사업을 이어 받아 장애인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우수사례로 ‘지역행복생활권 공동장사시설 조성사업’, ‘광역시티투어버스 운영 및 연계관광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선정되기도 했다.

‘지역행복생활권 공동장사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과거 광주에 거주하던 시민으로만 제한하고 있던 장사시설 사용 대상은 같은 생활권인 5개 시·군의 주민까지로 확대했다.

2015년 7월 조례개정을 마치고, 망월묘지공원 제8묘역에 ‘8구용 가족봉안평장분묘 1800기’를 조성했다. 가족봉안평장분묘는 광주시,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치 대상은 민법상 가족이면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최초 봉안일로부터 60년이다. 1기당 분양료는 사용료와 설치비, 관리비를 포함한 221만4000원이다.

2016년까지 빛고을남도투어는 총 3코스로 운영됐다. ‘선비문화코스’는 담양과 장성의 고즈넉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죽녹원, 백양사, 환벽당, 소재원 등이 주요 관광 코스였다. ‘역사문화코스’는 나주와 함평을 경유하고 국립나주박물관, 황포돛배, 함평 생태공원 등의 관광지가 있다. 화순은 ‘자연문화코스’로 증심사와 운주사, 화순적벽 등으로 이뤄졌다.

올해는 이에 추가해 광주의 도심권과 담양,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의 지역관광 명소를 두루 둘러볼 수 있는 ‘명사와 함께 떠나는 빛고을남도 테마여행’도 운영하고 있다. 빛고을남도 테마 여행은 초정명사가 동승하여 매년 다양한 전문분야의 인문학 주제로 강의를 들으면서 무등산권과 운주사, 화순적벽 등 경관이 빼어난 관광명소를 즐길 수 있으며 매월 1회 운행된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제4회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를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열고 14건의 협력과제와 지금까지 선정된 선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특히 2017년 선정된 선도사업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과 ‘남도청년 장돌뱅이사업’은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은 광주시, 전남도, 담양군, 화순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오토레일 코스를 개발해 자연유산 연계 관광을 활성화하고, 무등산권 지역산품을 글로벌브랜드로 육성해 지역주민 경제활성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통해 무등산권 지질관광을 세계화 한다는 계획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장은 “빛고을생활권은 주민 중심의 사업추진과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의 결과로, 2년 연속 우수 생활권으로 선정되고 생활권 선도사업 6건 선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친환경차 선도사업 도시브랜드 1위

제조업 위기 극복 대안

광주시의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사업이 한국브랜드경영협회 주최 ‘2017 고객감동 브랜드지수(K-CBSB) 도시브랜드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고객감동브랜드지수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지수평가로 서비스 최고 품질 단계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인증제도이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국내 대표적인 서비스 평가 지수다.

광주시의 친환경자동차산업은 민선6기와 더불어 본격 시작됐다. 윤장현 시장은 시장철학으로 ‘사람존중, 생명도시 광주’를 제시하고 이에 걸맞게 생명과 환경을 중시하는 친환경자동차산업을 미래 광주를 먹여 살릴 핵심산업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난해 7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확정돼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여기에 ‘광주형 일자리’가 접목되면서 광주의 친환경자동차산업은 전통 효과 산업들이 줄줄이 밀려나는 현재의 국내 제조업 위기 상황에서 대안적 모델로 급부상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근로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경영자는 적정임금의 고용환

경을 보장받아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 내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일종의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운동이다.

정부와 중앙 정치권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가 함께 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광주 지역본부도 지난해 총선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동의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노동계에서도 광주의 뜻과 방향에 공감을 표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금호타이어 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역 노·사·민·정 협력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광주형 일자리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자동차산업을 대한 정책적 제도적 틀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까지 접목시킨 광주시는 이를 적극 실행하며 투자유치에 나섰다. 그 결과 중국의 지우자동차와 오는 202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해 연 10만대의 전기차 생산을 약속하는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지우자동차와 CJ대한통운이 화물 전기차 동차 구입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국내 자동차업체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전기·수소차 생산에 대한 투자유치를 적극 모색해나가는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기 방송작가들 광주 답사 양림동·문화전당 매력 맛보기

국내 유명 방송작가들이 광주의 맛과 멋에 흠뻑 빠져들었다.

광주시는 방송을 통한 광주홍보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마련한 기획답사에 방송작가 20명이 참가해 광주의 관광명소와 근·현대사 유적들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답사에는 KBS 미니시리즈 ‘가시나무새’의 이선희 작가, 일일드라마 ‘결혼합시다’의 이우선 작가 등 다류, 오락 프로그램 작가들이 다수 참가했다.

‘남도의 맛과 멋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날 작가들은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답사한 후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동명동 카페거리를 방문했다. 19일에는 호수생태원을 둘러보고 소재원과 환벽당 등 가사문화관을 탐방했다.

작가들은 “광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아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9차례에 걸쳐 방송PD, 작가들을 초청해 광주의 맛과 매력을 소개했으며, KBS-2TV ‘생생정보’, MBC ‘생방송 오늘저녁’, SBS ‘화접기행’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다수 유치했다. 또 KBS-2TV 드라마 ‘너를 기억해’를 양림동에서 촬영하고, KBS ‘코리아 지오그래픽’과 SBS ‘컬처투어’를 통해 무등산과 양림동의 매력을 전국에 소개하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돌봄이웃과 해조류박람회 탐방

광주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문기)가 영구임대주택 거주 돌봄이웃과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총 500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완도국제 해조류 박람회 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 지난 19일 하남

제협 기회를 제공해 이웃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장이 되도록 기획했다.

박문기 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역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대형 공사장 지반침하 점검

6월까지 58곳 대상

광주시는 대형 공사장 주변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굴착공사장 내 유출지하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광주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편성,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공사장 58곳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와 일일 발생

량을 확인하고, 유출지하수 규모에 따른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신고 여부, 공공수도 사용개시 신고 여부, 계측기 설치 및 불인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공사현장의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출지하수의 감소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지하수법”에 따른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도심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는 자연적인 것보다는 대형 공사장 내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로 인한 지하 수위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하수법에서는 지반침하 예방과 지표수와 지하수의 순환건강화를 위해 하루 30t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면 유출지하수 감소 대책을 수립, 관할 자치구에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일부 공사현장에서 공사비 증가와 공기 연장 등을 우려해 관행적으로 유출지하수 감소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봄 낙석사고 주의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는 최근 불철 무등산 산행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산악사고에 대비, 사고 다발지역에서 인명구조 훈련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 제공>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F 767㎡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전시장
2~5F 794㎡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경
6F 743㎡ 전문병원원 및 뷔페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경

친절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